

김 형 수
 정회원, CDS 건축사사무소
 by Kim, Hyung-soo, KIRA

탄자니아 KOICA 현지조사를 다녀와서

KOICA site survey project in Tanzania

“지구의 끝에 다녀오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탄자니아로 KOICA(Korea International Corporation Agency) 조사를 떠나며 무심코 던진 인사말이다.

솔직한 내 인식 속에서의 탄자니아는 지구의 끝에 위치한 나라였다. 사실 KOICA로부터 파견을 의뢰받기 전까지 탄자니아는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사자의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아프리카 지도를 꺼내들고서야 비로소 그 위치를 알 수 있었다.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 탄자니아 최대도시 '다레살렘' 시와 '모로고로' 시에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휴양지로 유명한 '잔지바르' 섬과 '펨바' 섬에 각각 농산물 가공센터와 도축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해외원조 전담 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탄자니아 정부의 요구사항중 농산물 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주기로 결정을 하고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국가로는 드물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여러 가지 성장 요건을 갖추고 있어 UN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원조가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농산물의 가공을 통하여 오랜 기간 보존 가능하며, 또한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결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현지의 조건과 부지 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필자는 건축부분 조사단으로 파견되게 되었다. 조사단원은 모두 3명이었는데, 본인 이외에 농수산물 가공과 관련된 식약청의 공무원과 농산물 가공 전문가였다.



1. KOICA의 민간외교관인 자원봉사자와 함께 찍은 사진
2. KOICA 조사단 환영을 위하여 풀밭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동네 아줌마들.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구로서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원조 및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프라 시설 건축, 개발조사, 해외봉사단 파견, 민간단체(NGO)지원, 해외재난복구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평소 마스크에서 해외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때면 건축도 인간의 삶에 의료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전문가들에게는 이러한 봉사가 여의치 않을까 생각해 오던 차에 KOICA의 탄자니아 농산물가공센터 기초 조사를 의뢰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합류하였다. 탄자니아는 풍토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황열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였으며 말라리아 예방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 말라리아 모기에 무척 많이 물렸는데 다행히 병에 걸리지는 않았다. 현지 KOICA 소장님은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 보다 말라리아에 걸린 후 치료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고 경험담을 늘어놓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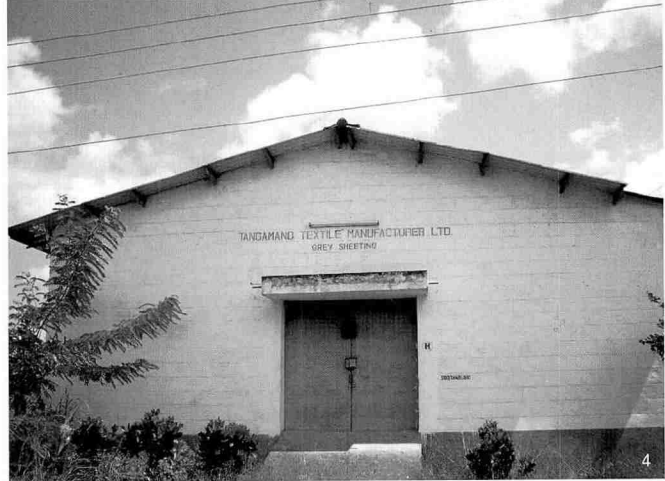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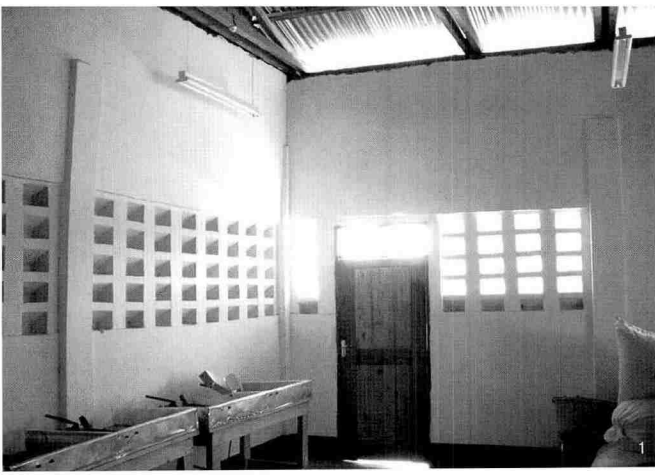
탄자니아는 열대성 기후로 일년 사시사철 과일과 곡식이 풍부하게 자람에도 불구하고 가공과 저장 기술이 없어 그중 많은 부분이 부패되어 소실되며 이에 따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일어나는 나라였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저장시설이 없고 기온이 높은 나라이므로 수확하는 시기가 조금 지나면 많은 양의 농산물이 부패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 식품가공처리 기술을 도입하여 저장비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화 하는 것이 탄자니아 정부의 요구사항이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의외로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전자산업과 자동차, 조선이 매우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탄자니아 사람들은 정이 많고, 사람들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등 한국사람과 정서적

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KOICA 조사단은 한국 정부의 대표단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와 실무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모두들 모두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우리에게 듬뿍 보여주었다.

탄자니아는 서구 이외에 동아시아의 세나라 즉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는 숨 가쁜 현상이었다. 아프리카의 자원을 노린 중국은 탄자니아에 막대한 자금을 원조하며 탄자니아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었으며 현재 대규모 스포츠 스타디움을 지어주고 있었다. 일본의 JAICA도 '잔지바르' 도시 전체의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주는 등 한국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탄자니아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다. 탄자니아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의 99%가 일본제 자동차인 점을 보면, 일본이 원조를 통하여 탄자니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조 규모면에서는 두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한국의 KOICA는 그러나 단원들의 인간적이고 근면한 모습으로 탄자니아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탄자니아 사람들은 60년대초 자신들보다 더 가난했던(?), 아무런 자원도 가진 것 없는 작은 나라 한국이 오직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감명을 받고 있었으며, 탄자니아의 고위관리들은 한국을 자신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벤치마킹해야할 모범이 되는 나라임을 여러 번 표현하였다. 한국의 원조금액은 비록 작았지만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던 중국과 일본이 주는 원조와 달리, 자신들과 같이 가난했던 나라가 빈곤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나라가 주는 도움에 대하여 더 많은 감동을 느끼는 듯 했다.

또한 여기에는 KOICA 조직의 열정과 봉사가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 현지 조사를 하는 동안 두명의 KOICA 봉사단원을 만났는데,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잔지바르' 라는 섬으로 2년간 봉사를 온 한 여학생은 지난 2년간 그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 없이 선양하고 있었으며 무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1. 벽돌 루버로 마감된 실내 내부, 상부의 골강판과 벽체 사이에도 통기구가 있다.
 2. 탄자니아는 골강판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별다른 디테일 없이 나무트러스에 못으로 접합되어있다.
 3. 중정 형태의 건물로 중정의 공기가 일사에 의해 가열되어 상승하면서 기류가 형성된다.
 4. 전형적인 탄자니아의 공장 건물 형태

않는 귀중한 한국의 외교관이였다. 그 학생의 전공은 원예학으로써 옥수수의 재배와 육종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그곳 전문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다. 또 한명의 봉사단원은 더 늦기 전에 해외에서 봉사를 하고자 삼성전자를 사들여 역시 '잔지바르'에서 컴퓨터를 교육하고 있는 34세의 늦깎이 노총각으로 과묵했지만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느껴지는 단원이였다.

탄자니아의 건물 형태는 조적식 벽체에 간단한 트러스를 구성하고 그 위에 양철 골강판을 덮은 것이 전부이다. 그나마 초가집이 아닌 양철 판을 사용한 건물은 고급 건물로 인정 받았다. 창은 대부분 유리창이 아닌 벽돌이나 나무로 만든 루버형태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남쪽(여기는 남반구라 해가 북쪽에서 움직인다.)은 그나마 루버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창틀만 설치하고 그냥 뻥 뚫린 상태가 최종적인 마감상태였다. 지붕 디테일의 경우에도 골강판과 벽체사이에 아무런 마감도 없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실내공간이 과열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내는 매우 쾌적하고 시원하였다. 통풍과 실내의 기류가 잘 형성되기 때문이었다. 건물은 대부분 소규모였으나 조금 규모가 큰 건물은 통풍과 환기를 위하여 가급적 □ 자형 중정형 평면을 도입하였다. 중정 내부의 공기가 가열되어 상승되면서 건물 전체에 기류가 형성되는 자연형 태양열 냉방 시스템을 도입한 셈이다. 건축물의 마감은 페인트가 아니면 시멘트 표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은 모두 흙과 나뭇잎으로 만든 초가집이었다. 초가집 내부는 취침을 취하는 부분에만 천이나 간단한 카페트가 깔려져 있었으며, 나머지는 흙바닥이었다. 그러나 역시 내부는 무척이나 시원하였으며, 쾌적하였다. 지역의 자연환경에 잘 순응하고 적응한 형태의 건축물이 제공하는 편안함이 있었다.

KOICA의 현지 조사 내용은 탄자니아 정부에서 제시하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지 시공을 위한 규모 검토, 간단한 평면의 제시, 건축물의 구조 검토, 자재의 조달과 공사비 산정 등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여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KOICA는 향후 몇 년간 해외 원조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실행중이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그 경제규모에 비하여 해외원조 비율이 적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최근 원조규모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아마도 KOICA의 원조 금액증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축분야가 아닐까 생각되며, 이에 따른 건축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건축의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사는 KOICA의 해외 협력사업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의 민간외교사절로서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